

## 북한의 여가 문화

주강현 / 민속문화연구소장, 문화재전문위원

### 잘 노는 북한 문화

**북**한 사람들은 대체로 딱딱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어디서나 신바람 나게 놀기를 좋아한다. 휴일만 되면 '청룡열차' 등 현대식 어린이 놀이 시설이 갖춰진 평양 대성산 유원지에서는 인파로 법석거린다. 놀이 나온 사람들은 노래를 시키면 처음에는 미적거리다가도 '발동'이 걸리면 하나같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 기타나 아코디언을 가져온 사람들은 재치있게 웃기는 동료 사회자를 앞세워 노래자랑과 춤판을 벌이며 다른 한쪽에선 장기나 윗놀이, 주패놀이에 열중한다. 노래자랑의 경우, 처음 나온 사람이 노래를 부른 후 다음 차례를 지명하는 식이었는데 남녀 모두 사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래자랑이 시들해지면 금방 춤판으로 이어지곤 한다. 당국이 보급한 무도를 학교에서 익힌 탓인지 춤 못 추는 사람이 없다.

대략 이와 같은 관측통들의 보고는 정확한 사실일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은 노는 것을 즐긴다. 북한 사회에서 때만 되면 '속도전'을 부르짖는 이면에는 속도전을 내는 방식으로 일을 '이악스럽게 달라붙어 완료하자'

는 독촉성 주문 이외에도 태만과 비능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이악스럽게 달라붙는 일 방식'에서는 결코 자본주의 생존 방식을 넘어볼 수 없을 것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과 동독 주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생존 경쟁이라는 변수에서는 결코 사회주의권이 자본주의권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다.

여가 문화의 경우에도 우리 생각의 출발점은 "북한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집단주의 사회의 기본은 개인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인을 위하는 사회인 탓으로 여가생활 역시 '조직되는 것'이다. 여가 생활도 우연한 것보다는 전사회적으로 '조직'된다.

'여가 생활도 조직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으당 '여가 생활조차 통제된 사회가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된다. 반은 맞는 말일 것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조직된다. 모든 것이 조직되어 이루어지므로 '조직된다'는 말로 '통제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내면을 조금만이라도 들여다 보면 '조직된다'는 말과 '통제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다.

## 조직되는 일상 생활

평양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도 아침 출근의 러시아워로 시작된다. 만원버스나 지하철,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각자 일터로 나간다. 중국, 베트남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자전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으나 근년에 들어와서 자전거 통행 도로와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엄격히 정해둔 것을 보면 그만큼 자전거 통행이 대폭 늘어났다는 증거다. 실제로 눈에 떨 정도로 자전거 통행이 늘어났다.

차량이 적은 탓으로 남한의 서울 같은 러시아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버스 안이 상당히 붐빈다. 도로와 인구에 비하여 차량이 적은 탓으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대중 교통 수단의 부족은 붐비는 찻간 풍경을 연출한다. 콩나물시루로 변한 버스, 심지어는 버스가 아니라 짐 싣는 트럭을 타고서 이동하는 모습도 곧잘 눈에 띈다.

대개 사람이 저마다의 일터로 나간 낮 시간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비어있다. 낮에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낫술에 취한다거나 할 일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극장 구경을 다니고 친구들과 카페를 찾아다니는 식의 여가 생활은 당연히 없다. '고요한 평양거리'라는 식의 방문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현상때문이다. 바쁜 낮 시간에 일터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일이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소비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함과 대비되거나 서비스업이 사회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회와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다방이나 카페 문화, 오락실, 여관 그밖의 다양한 소비 문화가 발전한 남한 사회의 한낱 풍경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터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가정을 지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일찍 귀가하여 가사를 돌본다. 주부들은 출근 전에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퇴근 후에는 데려와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기도 하고 집에 와서는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한다. 산모의 경우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탁아소에 가서 30분간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다. 즉 주부들은 남성들보다 출근 시간이 30분 늦고 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빨라 '6시간 노동'을 하지만 줄어든 2시간은 대부분 집안일에 투입된다. 북한의 여성들은 여러모로 볼 때 직장의 일과 가사 부담이라는 양면의 무게를 함께 지니고 있다.

일요일이나 비번 같은 휴일이 오면 북한 사람들도 공원이나 기타 놀이터로 놀러간다. 평양 대성산유원지 같은 오락 시설물은 좋은 휴식터며 유난히 많은 녹지대와 공원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일요일날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자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빈둥거리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즐기

는 모습도 소설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인간사 남녀의 사랑이 중요할진데, 보통강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띈다. 근년에 들어와서는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손잡고 데이트하는 아베트족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게 평양 사람들은 나름의 보통 사람들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 물론 그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가령 학생 신분이라거나 군인, 기타 다양한 직종의 차이에 따라서 하루 생활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차이가 나겠지만 남한 사회같이 복잡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여가 생활 방식은 드물 것이다. 아무래도 평양시의 여가 생활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여유가 있을 법하다. 이는 도시와 농촌, 평양과 여타 도시들과의 현실적인 편차가 존재하는 탓이다.

## 다양해진 의식주 여가 생활

대개 인민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의 대종은 순수한 개인적 차원에서 독서나 산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청취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쇼핑, 문화 생활, 체육 생활 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쇼핑 부분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국영 상점 말고 직매점이 늘어났다. 직매점은 생활 필수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급하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부녀자들의 여가 생활에서 쇼핑이 빠질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준다. 일용 잡

화 및 생활 필수품 직매점은 전국에 수백 개에 이른다. 농촌에서는 재래 장터를 연상시켜주는 농민 시장인 장마당이 붐빈다.

식당 역시 여가 생활에서 중요하다. 평양 역전이나 창광동에 수십 개의 식당가가 탄생한 지 근 10 년이 넘었다. 특히 창광거리는 '먹자골목'이다. 이들 식당에서는 접대원들의 접대를 받아가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차츰 전문 요리를 내놓는 식당도 생기고 있으며, 이 역시 여가 생활 확산과 유관하다. 중국이나 일본 재일동포와 합작한 식당도 개업하였다. 요즈음의 북한 새 도시에는 으레 삶의 질과 밀접한 편의 시설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령 창광거리는 80년대 건설했다. 보통강 기슭에서 평양역까지 구간으로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중앙당청사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당 간부들이 입주해사는 동네다. 창광거리는 먹자골목이기도 하다. 간선도로를 따라 음식점과 술집이 늘어서 있다. 30여 개 음식점에서 신선로와 불고기, 국수와 지짐 등 여러 가지 민족 음식과 중국 요리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평양고려호텔, 봉화신선로, 금강술집, 서양요리점, 은정청량음료, 진주조개구이, 구룡맥주집, 락원갈비국집, 금강생맥주집, 골단고기집, 은방울찻집 등이 있다. 남한에서 90년대 후반에 선보였던 조개구이집은 북한에서는 오래 전부터 영업해왔던 메뉴로 이채롭다.

편의 시설의 주요 특징은 숫자가 적은 대신, 그 규모 면에서 대형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욕장과 샤워 시설, 한증탕, 각종 치료 시설, 체육 시설, 안마 시설 그리고 이발관과 미용실, 2,000여 개의 관람석을 가진 수영장이 부속되어 있는 것이다.

여가 생활에는 이발이나 미용, 옷차림, 화장 등도 포함된다. 우선 여성들의 머리형과 복장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가령 화장법을 적극 소개하고 권장하는 글들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사회에서는 화장법이나 머리 스타일, 옷차림 등이 변화된 사회주의 생활에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다양한 복식 발표회나 창작 작품 발표회도 열리고 있다. 이 역시 여가 생활과 유관하다. 이러한 일들은 평양의 중앙연구소와 각 도나 각 공장·기업소 내의 연구 기관들에서 수행된다. 중앙연구소에는 부속 학교도 설립되어 양재를 가르친다. 이들 일들도 모두 인민 생활 향상 운동과 직결되는 것이다. 평양에서는 2000년 3월 23일 2000년도 조선옷패션쇼가 열렸다. 평양시 낙랑구역 피복연구소 옷전시장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치마저고리를 비롯해 양복, 달린옷, 나닌옷, 반외투, 긴외투 등 92 점의 여성 옷이 선보였다. 경쾌하고 발랄한 음악에 맞춰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맴

시있게 차려입은 모델이 등장하자 관중들 속에서는 연이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북한의 패션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디자이너인 평양미술대학 강좌장(학과장) 리유미를 소개한 내용도 잡지에서 눈에 띈다. 의생활의 화려해지는 풍경이 눈에 띈다.

## 대중 오락의 다변화

북한 인민들의 취미 생활이나 오락 수단으로 영화 관람이나 교예, 연극 관람, 음악 감상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공연들은 매우 어렵고 딱딱한 수준이 아니라 인민적 취향을 강조하는 통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공연을 만들기도 한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놀 때 열심히 노는 것도 인민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북한 인민들은 1인 1기의 문화 교양사업 등 군중 문화 사업에 힘입어 누구나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춤도 잘 추며 노래도 잘하는 등 제대로 놀 줄 안다. 주말마다 무도회를 열기도 하고 합동야유회를 열거나 매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잡아 취미 오락 생활을 즐긴다.

남한의 대중 예술이 대개의 경우에 스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치 개념은 다르지만 북한 사회에서도 여가 생활에서 스타의 존재를 배놓을 수 없다. ‘휘파람’을 부른 보천보전자경음악단의 전해영, ‘영화 주제가의 여왕’이라는 최삼숙 같은 가수들을

꼽을 수 있다. '휘파람'의 전해영(28세)은 보천보악단 소속이나 솔로가수로도 활동한다. 아무도 몰라, 꽃 피는 처녀, 나는 생각해, 김정일화, 별보러가자, 밀영의 달아, 흰눈이 내리네, 처녀 시절 등 많은 곡을 냈는데 민요나 가요외에도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 노래를 잘 부른다. 160cm의 신장에 가냘픈 몸매로 1991년 10월 북한 가수로는 최고의 명예인 인민배우 호칭을 받은 그는 어렸을 적부터 유명했다. 왕재산 악단의 전속가수인 염청도 전해영 못지 않게 인기를 끌고 있다. 1996년 인민배우가 된 그는 지난 1991년 중국 공연 때 새타령으로 관중을 매료시킨바 있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주인공 초청미(43세)는 인기있는 성악가수로 팬레터(공연 축하 성과 편지)를 많이 받는다. 모란봉교예단 소속의 3형제 마술사도 큰 인기다. 김광석, 동석, 영석 형제가 그들이다. 마술에 입문한 지 10여 년간 칼 찌르기, 물과 불 속의 조화, 보물함 등 수백 편 작품을 창조하였다. 또한 '두뇌 스포츠'로 인기를 더해가는 바둑에서도 스타가 탄생하고 있는 중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가끔 공휴일 같은 날 아이들과 공원을 찾는다거나 가정에서 집수리를 하거나 낮잠을 자는 것으로 여가 시간을 보낸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지하철을 타고 대성산에 있는 휴희장에 나들이를 가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몇만의 인파가 모여들

며 그곳에서 전자 오락도 하고 전동 열차를 타거나 모의 사격 연습도 즐긴다. 만경대 유희장과 만경대 놀이장도 유명하다. 대동강변에서 낚시도 즐긴다. 청춘 남녀들은 보통강가의 벤치에서 사랑을 속삭이기도 한다.

직장이나 지역 단위, 협동조합, 학교 등에는 각종 군중 문화 회관 또는 각종 군중 문화 오락실이 있어 여러 가지 놀이와 오락을 즐긴다. 문화 회관에는 보통 탁구대나 장기판이 마련되어 있어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탁구를 할 수 있으며, 직장 대항 탁구 시합을 하기도 한다. 체육 시설뿐 아니라 가야금, 장구, 바이올린, 아코디언 등 각종 음악 시설도 있으며 문학이나 무용, 미술, 연극 등 취미 서클이 있다. 현대식 레저 스포츠로는 평양시 통일거리의 낙원관과 현대식 야구장도 있다.

낙원관은 종합 레저 스포츠 시설로 평양 시내 중심가인 통일거리 입구 청년중앙회관 옆이며, 부지 면적은 19 정보, 총 건축 면적은 10만 3,500 m<sup>2</sup>다. 이곳에는 볼링장, 실내외 풀장, 수상스키장, 전자 오락실 및 각종 문화, 체육, 오락 시설 등이 있다. 2층으로 만들어진 볼링장의 총 건축 면적은 1만 4,000 m<sup>2</sup>이며 정면은 유리로 설계돼 있다. 야구장은 평양 청춘거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3,500 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다. 인조 잔디가 입혀져 있으며 전광판 등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오

락 수단으로는 장기 놀이가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다. 명절 때면 가정이나 야외에서 율놀이 등을 즐기며 화투는 없어진 대신 주패놀이(서양식 카드놀이)가 성행한다. 주패놀이 기구로서는 구하기가 가장 용이한 중국식 트럼프(56장짜리)가 주로 사용된다. 말하자면 서양식 트럼프의 일종이다. 장기는 옛 식과 다를 바가 없으나 장기판이 남한 것보다 무려 4 배나 크며 포나 차 같은 말의 글씨가 한글로 되어있다. 남한 사회에서는 주로 노인층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 이들은 거의 즐기지 않는 장기가 북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바둑도 널리 보급되어 있다. 예전에는 북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생산적인 오락경기'로 비판되어 바둑을 보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1989년경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대단히 인기있는 종목이 되었다. 1989년 국가바둑협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세계 바둑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영향과 바둑 종주국을 자처하는 일본과의 수교 분위기 조성에 알맞는 종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5월에 국제바둑협회에 가입하였고 평양시 청춘거리에 바둑회관도 건립되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세계적 규모의 바둑 대회에 선수 파견도 하고 있는 중이다. 거액이 걸린 국제 기전도 잇달아 창설되고 있어 가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감을 준다. 1990년 창설된 바둑대

회는 고단급(4급 이상)과 저단급(3단 이하)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3년에는 북한 바둑의 일인자인 문영삼을 비롯해 유망주 8 명을 선발하여 중국에 바둑 유학을 보냈다. 북한 바둑의 메카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바둑소조이다. 리봉일, 최명선, 최은아 등이 이 곳 출신으로 중국 유학과들이다. 최고 기수는 문영삼으로 1978년 함흥 출신인데 10살에 바둑돌을 손에 쥐기 시작하여 1993년 전국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 1997년 세계 아마추어 바둑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국가체육위원회에서 '두뇌스포츠'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역시 대중 여가의 특징은 영화 감상에서 드러난다. 북한의 영화는 90년대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반영하여 '민족과 운명' 같은 대작 이외에는 별로 흥행작을 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0년 들어와서 제법 많은 편수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영화의 특징은 템포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이전 영화가 느리게 가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사회 생활의 감각이 빨라졌음을 반영함이다. 재미있는 것은 남북 교류와 관련하여 나운규의 재해석이다. '우리나라에서 비판적 사실주의 영화 예술의 발생과 발전에 공헌한 해방 전의 대표적인 영화 예술가이며 영화 문학 작가, 영화 연출가였고 재능있는 배우'로 평가한다. 평양출판사에서는 1999년 11월 말에 「나운규와 수난기 영화」(최창호·홍강성 공저)를 펴냈다.

우리나라 초기 무성 영화와 문화 계몽 운동, 회령 사람 나운규, 아리랑 이후의 나운규와 수난의 영화들, 임자없는 나룻배와 나운규, 무영 영화 시기의 변사와 여배우들의 운명 등 9장으로 구성되었다. 2000년 여름에 남북 합작 영화 1호로 아리랑이 선택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남한에 용가리가 있다면 이북에는 일찍이 불가사리가 존재했다. 불가사리는 일본으로 수출되어 많은 관객을 모은 바 있다. 불가사리가 남쪽에서도 방영된다고 한다. 남북문화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도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에서도 미국 만화영화 톰과 제리가 방영되었다. 아무리 힘이 약해도 머리만 잘 쓰면 힘센 자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 그러나 이 만화 영화가 미국산임을 아는 민중은 드물다. '우둔한 고양이와 꾀 많은 생쥐'로 대사를 거의 삭제한 채 번안하였다.

개인 오락으로 남한의 아이들이 많이 즐기는 전자오락이 등장한 것도 큰 변화다. 1991년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처음으로 전자 오락실이 개관된 이래로 각 중소 도에서도 손쉽게 오락실을 구경할 수 있다. 태권도를 소재로 한 격투기 게임 등 전자 오락이 큰 인기다. 평양 등 주요 도시에는 개인 경영의 소규모 전자 오락실이 등장하여 한 게임당 1~3 원씩 받고 있다. 심야 시간대에는 영

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게임팩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 오락기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손쉽게 들여다가 영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관심이 폭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오늘의 북한 학생들에 가장 인기있는 여가는 역시 컴퓨터 바람이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등도 보통 명사가 되었다. 컴퓨터는 강성대국 건설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등중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다. 1999년 11월 4일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종합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컴퓨터과학대학이 설치됐다. 2000년 1월 북한 고등교육도서출판사에서 는 '누구나 배울수 있는 WINDOWS 95', '프로그래밍 언어 서적인 비주얼 C' 등 관련 서적 20여 종을 제작하였다. 1999년 8월에는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기계 설계 2분야로 지방 경연을 거쳐 8월 13일부터 중앙 경연에 돌입한 바 있다. 조선컴퓨터센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일부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방북단에게 보여준 기술 가운데는 음성인식시스템이 있었다. 마이크로 책을 읽으면 그 구절이 그대로 화면에 등장했다. 노래를 부르자 화상에 반영되었다. 지문인식 시스템도 뛰어나다. 집체적으로 연구하고 우수한 인재를 한 곳에 다량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체육관에 'ATAE.SAMSUNG'

이라는 브랜드가 새겨진 가로 9.5 m, 세로 6.2 m짜리 이북 최초의 대형 컬러 전광판을 설치된 것은 바로 북한의 컴퓨터 바람을 잘 응변해준다.

여가 생활에서 방송 청취도 빠질 수 없다. 특히 대중 오락 수단으로 방송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용 라디오 방송으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유선방송이 있다.

### 문화 유산에 대한 새로운 강조

여가 생활에서 관광도 빠질 수 없다. 내외 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평양이다. 모란봉이나 김주석 생가를 방문하고 만수대예술극장, 인민교예극장 같은 공연장이나 옥류관이나 청류관 같은 음식점도 찾는다. 유적으로는 대성산성, 동명왕릉, 안학궁터, 보통문 등이 있으며 박물관으로 조선혁명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등이 알려진다. 서해안과 대동강의 관문인 남포에 가면 유명한 남포갑문이 있다. 그밖에 황해도 개성의 박연폭포를 비롯한 고려의 유적, 황해도 구월산, 원산의 묘향산의 보현사와 국제친선관람관, 내금강과 외금강, 해금강을 비롯한 금강산의 절경, 백두산이 천지와 삼지연, 백두산 밀영과 여러 혁명 유적지들, 영변의 약산동대, 통천의 시중호 등 많은 관광 자원이 있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관광 안내서를 군내

용과 외국용으로 출간하고 있다. 평양, 남포, 묘향산, 해주, 백두산, 원산, 금강산, 함흥, 개성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원산, 개성, 금강산 등의 여행지에는 그 지방의 관광을 위한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가 준비되어 있어 안내서와 지도만을 보고도 찾아갈 수 있다.

문화 유산 보호 주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고건문 보수에도 나서고 있다. 북한은 2000년에 들어와 개성시 자남산 기슭의 한옥촌지구인 보존거리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남대문으로부터 1,000여 m 구간의 북쪽 도로를 따라 펼쳐진 300여 동의 전통 한옥을 옛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에 옛 풍취가 나도록 녹지를 조성했다. 보존거리에 편의 봉사 시설과 설렁탕, 약밥, 삼계탕 등 전통 요리 식당도 조선식으로 잘 꾸렸다고 방송에서 소개했다. 중앙방송은 “새롭게 단장된 고색창연한 합까 지붕들과 고유한 벽돌 무늬 장식의 한 담장들, 특유한 울림을 내며 열리는 문들을 비롯한 보존거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반만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 전통을 가진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단군의 실치를 아예 무시하다가 1994년 단군릉 발굴을 계기로 적극 인정하고 나섰다. 그동안 개천절이란 표현조차 쓰지 않고 일체의 기념 행사도 해오질 않았다. 그러다가 단군릉 발굴 보고를 통해 실존 인물



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유물사관을 제치고 단군을 인정했다는 것은 계급사관으로부터 민족사관으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커다란 태도 변화이다. 1994년 1월 9일 단군릉 개건을 위해 단군릉 복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개축 공사를 추진. 같은 해 10월 11일 준공식을 가진 데 이어서 12월 20일에는 단군제를 지냈다. 이는 고구려동명왕릉 개축(1993. 5.14), 고려 태조 왕건릉 복원(1994. 2.1) 뿐만 아니라 발해 유적 발굴 조사(1993. 5)의 연장선이다. 이는 평양이 한민족의 발상지임을 내세워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북한은 1998년 3월 평양 일대의 유적을 대동강문화로 명명하였다. “구석기시대 초기로부터 고려 시기의 문화 유적 유물들이 수많이 드러난 평양을 중심으로 대동강의 중하유역을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이 인류와 고대문명의 발상지·중심지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포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단지 이남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남한 시민들이 이북을 방문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더욱이 금강산에 면회소가 설치되어 이산가족들의 집중적인 이목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이북의 인민들도 금강산은 잊지 못할 산이 되고 있다. 마침 현대측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금강산권역 확대 개발이 타결되었다. 관광은 단순한 관광을 뛰어넘어

남북의 화해협력시대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있는 셈이다.

## 남북 교류 협력과 문화의 중요성 증대

북한 사회에서 여가 생활이 확대될 전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외부의 요구보다는 무엇보다 북한 사회 자체의 내부적 요구가 확장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혁명 건설에 나섰던 보릿고개세대와는 전혀 다른 혁명 3세대가 등장하여 새로운 연령층을 구성한다는 점도 중시해야 한다. 이들의 감각은 전쟁의 폐허에서 고생을 감내하면서 건설에 매진해온 세대와는 다른 점이 많은 것이다. 북한 사회의 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다”는 논리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증거물로서 인민 생활의 질을 드높이는 과제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인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과제에는 경공업 혁명이나 봉사 혁명 같은 요소들이 중핵을 차지하며, 이는 곧바로 여가 생활의 확장이란 측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강성대국’은 여가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분명 변화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변화의 기준은 여전히 ‘우리식으로 살자’는 입장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명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 북한 인민들의 여가 생활도 이점

에서는 예외가 아닐 것이다. 여가 생활의 이해 방식도 이 같은 사전 전제를 반드시 갖추고 엿보아야 그만큼 오차가 적을 것이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남한의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흡연율이 증가한 것은 개방 정책의 결과라고 비난했다. 방송은 미국식 양키 문화와 일본 사무라이 문화가 침투한 나라에서 민족성이 사라져가고 특히 청년들이 극도로 타락·변질해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이 퇴폐 문화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뉴스」(2000. 2.10)). 아무리 남쪽과 교류는 할지언정 '황색바람'에 대한 문단속의 입장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20세기말, 탈냉전 이후의 국제 정세 흐름은 통일 환경 여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고 있다. 온갖 난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남북 관계의 현실은 이미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 문제에서 사회 문화 부문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미약하다. 사회 문화 부문의 중대성은 어디서 기인할까. 정치·군사·경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국민 다수의 남북 상호간 이해 증진 없이 남북 화해는 요원하다.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재인식은 기존의 통일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모든 것이 온통 정치·경제 문제로만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에 기초해서만 논의되는 편

향성을 극복해야한다. 통일 문제의 사회 과학적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인문적·문학 예술적 상상력이 고갈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관성과 편향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일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남측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이미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문화를 논외로 하고는 어떤 사회적 논의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문화 상품'이란 표현이 극명하게 드러내주듯 자본주의 대량 생산·대량소비체제에서 문화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강하다. 북측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문화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이미 '사회 정치 문화'로 규정된다. 따라서 남북 공히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통일 논의가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거대담론 위주로 진행되어온 점도 극복해야할 것이다. '거대담론'의 긴요성은 인정되나 거대담론적인 논의 틀은 통일에 대한 대중성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일 논의 틀을 봉쇄하는 측면도 배태하고 있다. 군축·경제·정치 등의 문제가 거대담론적인 하드웨어라면, 사회 문화 분야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통일은 '제도와 제도'·'이념과 이념'의 통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라는 점이다. 통일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요즘처럼 실감나게 체현되고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 **92**